



**고성지역 첫 베베기** 추석 명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성지역 첫 베베기가 지난 1일 거진읍 송포1리 윤의열씨를 비롯해 최병주·황상연·윤기준씨 등 4개 농가에서 실시됐다. 윤의열씨는 이날 1천500평의 논에서 지난 5월10일 모내기를 한 윤두벼를 수확했다. 사진은 지난 1일 윤씨가 콤바인으로 베베기를 하는 모습. 최광호 기자

## 제수용 냉동문어 싸게 판매

고성군수협, 1kg에 1만8천원... 냉동 포란태도

고성군수협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지역 어업인들이 잡은 문어를 제수용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중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

이번에 판매하는 문어는 고성 앞바다 연안산으로 7월말 어획한 것을 살아있는 상태로 급냉해 신선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판매가격은 1kg에 1만8천원이다. 9월 현재 어획되는 문어 위판가격은 2만3천원을 상회하고 있어 시중가보다 5천원 가량 저렴하다.

고성수협은 이와함께 포란태에서 나오는 명란, 장란, 아가미로 맛있고 정갈한 반찬을 만들어 가족과 함께 고향의 맛을 느끼고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러시아산 냉동포란태도 판매하고 있다.

고성군수협 관계자는 “제수용품 가격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수협에서 비축한 문어를 저렴하게 판매하기로 했다”며 “지역주민과 출향인들의 많은 이용 바란다”고 했다. <문의 : 682-5554>

최광호 기자

# 대대리 포사격장 문제 국민권익위 탄원

주민들 서명부 받아 제출하기로 ... 6·7일 권익위 관계자 고성군 방문해 의견 청취

고성군 거진읍 대대리 북천 일대에서 군부대가 수십년간 포사격을 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강릉 등 타 지역 주둔 부대까지 이곳에서 포사격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고성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대대리 포사격장은 인근 주민들이 진동과 소음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입고, 유리창이 깨지거나 가축사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또 간성 시가지와 인접해 있는 데다 불과 400여m 거리에 고성중고가 있어 학습권 침해도 커 한때 사격장 이전이 추진되고, 오전시간대 사격 자제와 방음벽 설치 등이 논의되기도 했으나 어느

것 하나 성사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들어 강릉과 양양, 인제, 화천 등지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들도 이곳에서 사격 훈련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대대리 주민들이 포사격 중지를 위한 서명부를 받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주민들은 ‘대대리 지역에서의 군부대 포사격 중지를 위한 서명부’를 받아 6일 고성군을 방문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에 접수할 계획이다.

이동신문고는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려 대대리 포사격장 문제를 비롯한 지역 민원을 수렴하게 된다. 7일 오전 11시에는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대대리 포사격장 현지를 직접 방문해 주민들



최영섭 대대리 이장이 지난달 30일 열린 제9회 고성군이장단협의회 친선체육대회에서 대대리 포사격장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설명하고 있다.

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최영섭 대대리 이장은 “주민들이 특히 흥분하는 이유는 왜 타 지역에서까지 우리 지역에 와서 사격을 하느냐는 것”이라며 “타



대대리 북천 인근 포사격훈련장 모습.

지역 군부대까지 이곳에서 훈련을 하다보니 최근 들어 예년의 배 이상으로 사격이 많아졌다”고 했다.

최 이장은 또 “최근 포신이 길 어지면서 소음과 진동은 다소 줄

었지만, 굉음은 더 심해서 사격이 실시되는 중에는 등골이 오싹해 진저리를 치는 등 정신적으로 더욱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다. 최광호 기자

**영동OA사무기**

□디지털복사기 □소모품판매  
 □잉크젯·레이저 프린터 □팩스  
 □복합기렌탈 □LCD프로젝터

681-7607, 010-3179-7607

**고성군민 여러분,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

12일자 신문 추석연휴로 쉽니다. 19일자 정상 발행합니다